

폐교의 '박물관화'와 교육적 의의: 덕명학습장의 흥성교육역사관을 중심으로

안주홍*

국문초록 본 연구는 폐교 공간의 활용을 시설 재생이나 자산 관리의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적 장소성'과 '공동체 기억(교육유산)'의 재구성을 통해 지역사 교육효과가 무엇인지 덕명학습장의 '흥성교육역사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덕명학습장 관련 공식 누리집 자료, 행정·정책 문서, 공개 보도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전환 과정과 전시·운영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전환 맥락, '박물관화' 장치, 운영·참여 구조, 교육적 효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흥성교육역사관은 전시 서사와 사물·기록의 집적(전시·수장), 학습공간(준비실·세미나실 등)을 결합하여 교육 기억을 '물질화·서사화'하는 박물관화 장치를 형성하였고, 덕명학습장은 전시 기능과 메이커·AI·안전 체험 등 현재의 교육 운영을 결합함으로써 학습경험의 반복 가능성을 강화하였다. 교육효과는 인지(자료를 '증거'로 전환하는 해석·추론 수행), 정서·정체성(장소 기반 기억의 재인식과 세대 간 매개), 사회·시민성(기증·기록 참여 및 공공자산 공유의 학습화) 차원에서 범주화될 수 있었으며, 특히 사물기반학습(OBL), 장소기반교육, 사료 기반 탐구 원리를 결합하여 지역사 학습을 '장소-경험-증거' 중심 탐구로 확장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주제어: 폐교 활용, 박물관화, 교육유산화, 지역사 교육, 장소기반교육, 사료(증거) 기반 학습, 사물기반학습(OBL), 흥성교육역사관

목차

- I. 머리말
- II. 이론적 배경
- III. 충남지역 폐교 현황과 '박물관화'
- IV. 덕명학습장 '흥성교육역사관'의 교육적 역할
- V. 맺음말

논문접수일: 2026.03.04.
논문수정일: 2026.04.02.
게재확정일: 2026.04.10.

I. 머리말

최근 박물관은 수집·보존·전시 중심의 전통적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교육적·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는 2022년 박물관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여 접근 가능한 포용적인 기관으로 재정의하고, 공동체 참여, 다양성, 지속가능성, 교육 및 지식공유를 핵심 요소로 제시하였다(ICOM, 2022).

과거 박물관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위계적 기관으로 기능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지역주민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지역문화를 함께 해석하고 구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 청운대학교 연구교수/ juhongahn@naver.com

속에서 박물관은 지역정체성 형성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사회적·문화적 삶, 나아가 복지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기대되며, 박물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Sandell, 2003; Sandell & Nightingale, 2012).

이러한 변화는 지역박물관을 지역의 기억과 문화를 매개로 학습과 참여를 조직하는 교육적 실천 공간으로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역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보존·전송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지역민의 학습과 참여를 매개하는 교육적 실천 공간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을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뿐 아니라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이러한 맥락에서 폐교를 활용한 지역박물관은 일반적인 문화시설 조성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폐교는 본래 교육이 이루어지던 제도적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의 일상적 경험과 세대 간 기억이 축적된 생활공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공 유휴시설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폐교를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일은 단순히 물리적 용도를 변경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공동체가 공유해 온 교육의 기억과 장소의 상징성을 오늘의 문화적·교육적 자원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폐교는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교육적 기능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다시 말해, 폐교를 활용한 지역박물관은 ‘교육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다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재맥락화된다는 점에서 공간적·상징적 연속성을 확보하며, 지역사 교육, 생활사 교육, 세대 간 기억의 공유,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 공간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지닌다(Sandell, 2003; Sandell & Nightingale, 2012).

더욱이 폐교 활용은 지역소멸, 농어촌 인구감소, 교육 기반 약화와 같은 지역문제와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폐교는 흔히 지역 쇠퇴의 결과물로 인식되지만 이를 박물관이나 교육문화 공간으로 전환할 때 지역 쇠퇴의 상징을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 보존이나 시설 운영의 차원을 넘어 지역공동체가 자신의 역사적 경험을 자산화하고 이를 미래세대 교육과 문화적 실천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폐교 기반 지역박물관은 지역의 기억을 보존하는 장소이자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정체성을 재구성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교육문화 플랫폼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폐교 활용을 단지 효율적 자산 관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기존 시각을 넘어 지역사 교육과 공공역사 실천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폐교 활용 연구는 주로 유휴 교육시설의 효율적 재생, 교육문화시설로의 전환, 지역 활성화, 체험 공간 조성 등 정책적·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전개 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폐교를 지역사회 자원으로 재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가 본래 지니고 있던 교육적 장소성, 지역공동체의 기억, 그리고 그것이 지역사 교육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폐교가 박물관의 영역인 교육역사관으로 전환된 사례를 지역사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따라서 폐교 기반 지역박물관을 단순한 시설 활용의 한 유형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아가

그것이 지역의 교육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역사회 기억을 어떻게 재구성하며, 지역사 교육의 장으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덕명학습장 내 홍성교육역사관 사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덕명학습장은 폐교된 덕명초등학교를 기반으로 조성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장소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덕명초등학교는 2019년 4월 11일 폐교되었고, 2020년 2월 1일 덕명학습장이 개관되었다. 이후 2021년 7월 1일 홍성교육역사관이 구축되고 2023년 5월 23일 덕명학습장 개관식이 개최되었다. 또한 홍성교육역사관은 덕명초등학교 본동 3층에 지역 교육역사 전시실을 구성하고 개화기부터 1990년대까지의 홍성 교육사를 전시하였다.

이 공간은 홍성교육역사관 외에도 상상이룸공작소·AI융합학습지원센터, 안전체험관, 영재교육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부터 학부모까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덕명초등학교는 2015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1만 5000여 동문의 후원 속에 기념행사를 치를 만큼 지역사회에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받아 왔다.

본 연구는 덕명초등학교 폐교 이후 조성된 '덕명학습장'과 그 내부 '홍성교육역사관'을 중심으로 폐교의 박물관화가 지역사회 교육 및 공동체 기억의 재구성에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내용적 범위는 덕명초등학교의 역사적 변천과 폐교 이후 덕명학습장 및 홍성교육역사관으로의 전환 과정, 홍성교육역사관의 전시 및 교육 기능, 그리고 이 사례가 지니는 지역사회 교육적 함의에 초점을 둔다. 또한 본 연구는 폐교 활용의 기능적 효율성 자체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폐교가 지닌 교육적 장소성, 지역공동체 기억의 재구성, 지역사회 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연구 질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덕명초등학교가 덕명학습장 '홍성교육역사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어떤 정책·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었는가.

연구 질문 2. 홍성교육역사관의 전시·공간 구성은 폐교의 '박물관화'를 구현하는 전시 및 체험, 학습공간 등을 어떻게 조직하였는가.

연구 질문 3. 위 전환과 전시·운영 구조는 지역사회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적 효과와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식 기록 및 기관자료, 정책 행정 자료, 언론 1차 자료를 모두 검토하였다. 참고 자료로 덕명학습장을 방문한 학부모들의 면담을 활용하였고,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폐교의 '박물관화'를 전환 맥락(Policy & Context), '박물관화' 장치(Museumification Devices), 운영·참여 구조(Operations & Participation), 교육적 효과(Educational Meanings)로 조직화하여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폐교 활용 연구 동향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와 맞물려 폐교 활용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축적 되어왔다. 선행연구의 흐름은 대체로 폐교의 현황·유형화 및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폐교의 교육문화시설 전환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폐교의 발생 현황과 공간적 분포, 활용 유형, 정책적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후자는 이를 바탕으로 폐교를 도서관,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험학습장, 체험형 교육문화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폐교 활용 연구는 단순한 유휴공간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문화 기반 시설로의 재구성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왔다.

우선, 폐교의 현황과 기본계획을 다룬 연구로는 김재영·이종국(2014)이 폐교 활용 교육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기본계획 방향을 제안한 바 있으며, 배선학(2013)은 폐교의 공간적 분포와 활용 실태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폐교 활용의 제도적·공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이후 연구들은 보다 실천적인 활용 방안 모색으로 확장되었다. 예컨대 노영희·노지윤(2019)은 폐교 발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고, 최준렬·김훈호·김은경(2020)은 충남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활용 특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최재필·이윤재·유정원·변나향·문근중(2010)은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폐교 시설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김성덕·강정규(2017)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지역 폐교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폐교 활용 연구가 농촌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도시 및 지역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폐교 활용 연구는 관광·체험·숙박 기능과 결합한 복합적 활용모델로도 확장되었다. 장우석·정남수(2013)는 농촌 폐교 활용 정책 수립의 맥락에서 그린투어리즘 관점의 접근성 평가를 수행하고, 입지 조건과 연계 자원 권역 네트워크가 활용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이종국·허성훈(2011)은 체험활동과 숙박 기능이 결합 된 폐교 활용 유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과 공간계획의 적합성을 논의하였고, 이주일(2017)은 자연 순환형 복합 체험학습장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이미영·김효진(2023)이 경기도 미활용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적 활용방안을 탐색함으로써, 미활용 폐교의 교육적 재생 가능성을 다시금 부각하였다.

한편, 폐교를 단순한 교육시설이나 체험 공간을 넘어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다룬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이윤조·우종운(2020)은 폐교된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를 ‘소로리법씨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의 타당성과 의의를 검토하였으며, 송정화(2014)는 폐교박물관 사례인 도쿄 장난감박물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폐교가 물리적 공간의 재활용을 벗어나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담아내는 박물관 공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폐교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초기의 현황 파악과 유형화, 기본계획 수립에서 출발하여 점차 교육·문화·관광·체험·박물관 기능을 결합한 복합적 활용모델 탐색으로 확장 되어왔다. 특히 박물관 전환 사례 연구는 폐교가 지역의 기억과 문화유산을 보존·전시·교육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폐교의 '박물관화'는 단순한 시설 재활용이 아니라 지역사 교육과 지역문화 계승의 거점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학술적·실천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폐교를 박물관으로 재구성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연구 성과는 축적되어 있지만, 폐교 그 자체의 역사성과 함께 교육적 가치와 의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교를 박물관으로 전환한 충남 홍성지역 '덕명학습장'의 변천과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안에서 지역박물관의 역할과 폐교박물관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덕명학습장'의 전신인 (구)덕명초등학교의 역사성을 토대로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교육적 가치를 함께 탐색해 보도록 한다.

2. 지역공동체 안에서 폐교를 활용한 지역박물관의 특수성

박물관은 형태, 규모, 소장품 구성, 운영 주체, 설립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일하고 표준적인 유형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박물관은 고고학·인류학·미술·사진·조각·자연사·과학기술·사회사 자료 등 서로 이질적인 범주의 유무형 자료를 포괄하며, 그 자체의 역사와 논리, 운영 방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박물관은 하나의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특정 사회가 무엇을 보존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며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를 둘러싼 역사적·문화적 구성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Latham & Simmons, 2014; Mason,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제도적으로 정의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정의이다. ICOM은 2022년 박물관을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의 영구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유무형 유산의 연구·수집·보존·해석·전시뿐 아니라 개방성, 접근 가능성, 포용성, 공동체 참여, 다양성, 지속가능성, 교육, 향유, 성찰, 지식공유를 핵심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 정의는 박물관을 더 이상 유물 중심의 보존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공공적 가치를 생산하는 실천적 공간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역시 박물관을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제적 정의와 국내 법적 정의 모두 박물관의 핵심 기능을 전시와 보존에만 한정하지 않고 조사·연구·교육 및 사회적 소통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ICOM, 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미국박물관협회(AAM, 현 American Alliance of Museums)는 평가·인증 기준에서 박물관을 본질적으로 교육적 또는 미학적 목적을 지닌 상설 기관으로 보고 유형의 대상을 소유·관리·연구·전시하며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박물관의 핵심을 ‘전문적 관리’, ‘공공 접근성’, ‘교육적 성격’, ‘지속적 운영’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AAM, 2025). 결국 박물관에 대한 현대적 이해는 유물을 보유한 건물이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소통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지역박물관은 특히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지역박물관은 단순히 특정 지역에 위치한 박물관이라는 지리적 범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 기억, 정체성을 수집·연구·전시·교육의 방식으로 매개하는 기관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들은 지역박물관이 주민에게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며,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와 교육, 타 기관과의 협력 활동이 지역 이미지와 공동체성 강화에 이바지한다고 분석한다(심수연·한현수, 2025). 또한 커뮤니티 박물관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박물관과 공동체의 관계가 박물관 담론의 주요 주제가 되었으며, 포스트뮤지엄과 신박물관학의 흐름 속에서 박물관은 더 이상 지식을 독점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권한을 공유하고 함께 담론을 생산하는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양지연·김혜인, 2012; 강주희, 2024). 이러한 논의는 지역박물관을 ‘건물 안의 전시시설’로만 이해하기보다,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문화적 실천과 학습의 장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박물관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고 정태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권력이 교차하는 사회적 장소이기도 하다. Bennett(1995)은 근대 박물관을 단순한 교양 공간이 아니라 시민을 훈육하고 공적 질서를 구성하는 장치로 해석하였고, Hooper-Greenhill(2000)은 박물관이 지식과 시각문화를 해석하고 조직하는 방식 자체가 의미 생산의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Crooke(2007) 역시 박물관과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박물관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실천적 장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박물관은 특정 시대의 문화적 가치와 정치적 의도가 중첩되어 형성되는 공간이며, 개방성과 폐쇄성, 공공성과 권력, 교육과 문화적 헤게모니가 교차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Bennett, 1995; Hooper-Greenhill, 2000; Crooke, 2007).

이러한 이론적 배경 위에서 볼 때 폐교를 활용한 지역박물관은 일반적인 박물관 조성과는 구별되는 의미를 지닌다. 폐교는 본래 교육이 이루어지던 장소이자 지역주민의 생활 경험과 세대 간 기억이 축적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공공 유희시설과는 다른 밀도의 장소성을 지닌다. 따라서 폐교를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일은 단순한 시설 재생이나 건물 재활용이 아니라 교육의 기억과 지역공동체의 경험을 오늘의 문화적·교육적 자원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폐교 기반 박물관은 ‘교육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다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공간적·상징적 연속성을 확보하며, 지역사 교육, 생활사 교육, 세대 간 기억 공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 공간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기반 참여적 박물관교육 연구와

참여적 교육프로그램 사례 연구 역시, 박물관이 지역사회와 연결될 때 학습자의 소속감과 참여를 높이고, 지역사회 맥락 속에서 새로운 교육적 의미를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고운·강인에·이주연, 2020; 서진선·강인에·최지혜, 2019).

더욱이 폐교 기반 지역박물관은 지역소멸, 인구감소, 교육 기반 약화와 같은 지역문제에 대응하는 실천적 전략이 될 수 있다. 폐교는 흔히 쇠퇴와 상실의 표지로 인식되지만 이를 지역박물관이나 교육문화 공간으로 전환할 경우 지역 쇠퇴의 상징을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재의미화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교는 과거를 보존하는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가 스스로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고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교육문화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폐교 기반 지역박물관의 가치는 사라진 학교 공간을 보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축적된 교육유산과 생활세계를 현재의 학습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폐교 기반 지역박물관은 교육유산 보존, 지역정체성 형성, 공동체 참여를 포괄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역사 실천 공간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양지연·김혜인, 2012; 심수연·한현수, 2025).

결국 지역박물관은 지역의 유무형 유산을 수집·연구·전시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공공적 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폐교가 지역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지역박물관으로 전환될 때 그 의미와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즉 폐교 기반 지역박물관은 장소성, 기억, 교육, 참여라는 요소가 중첩되는 특수한 문화공간이며, 지역사 교육과 공동체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학술적·실천적 분석 대상이 된다.

III. 충남지역 폐교 현황과 '박물관화'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한 지역 인구구조 변화는 충청남도 농어촌의 학령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소규모학교의 증가와 학교 운영의 구조적 불안정을 초래한다. 이와 맞물려 정부 차원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조는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통폐합을 촉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누적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증가하고 있음을 전제하며, 폐교 활용 용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교육부, 2016). 또한 연도별 폐교 현황(2023년 26개교→2024년 33개교→2025년 53개교)은 폐교가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뒷받침한다(교육부, 2025).

다음은 (구)덕명초등학교의 소재지인 충남지역의 폐교 현황과 활용 상태이다.

〈표 1〉 충남지역 폐교현황과 활용상태(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 2023)

구분(시군)	폐교명	폐교연도	활용상태
천안	은석초 천북분교	2000	임대(청소년 체험시설)
천안	병천초 봉성분교	2007	미활용(일반매각 예정)
공주	탄천초 가척분교	1999	미활용(매각 진행 중)
공주	대룡초	2007	미활용(매각 진행 중)
보령	청파초 호도분교	2023	자체활용(청파초 외연도분교 병설유치원 호도학습장 활용)
서산	삼포초	1999	미활용(일반매각 예정)
서산	인지초 인정분교	2009	미활용(지자체 매각 진행 중)
서산	팔봉초 고파도분교	2023	임대(사용허가) 및 자체 활용
논산	호암초 삼동분교	1994	임대(도예체험학습장)
논산	양촌초 장원분교	1997	미활용(지자체 매각 무산)
논산	함산초	2002	임대(파크골프장)
논산	부적초 부남분교	2007	임대(공예체험학습장, 게이트볼장)
논산	호암초	2012	임대(문화예술체험장)
논산	황화초	2022	미활용(지자체 매각 예정)
논산	대명초	2022	미활용(매각 검토 중)
당진	도성초	2014	임대(드론 교육장 및 시험장)
금산	복수초 용진분교	2011	미활용(장래 수요 대비 보존)
부여	임주초	1995	미활용(임천초 문화재 발굴 이전 대비 보존 중)
부여	인세초	2018	임대 및 자체활용(세도노인대학, 가족체험장)
청양	장평중	2020	자체활용(건강증진 통합교육 체험관 설립 예정)
홍성	광남초	2014	미활용(2023.09. 임대 계약 해지)
홍성	대평초	2014	미활용(총동문회 매각 반대)
홍성	광성초	2015	임대(박물관 및 도서관)
홍성	장곡초 오서분교	2015	미활용(지자체 매각 협의 중)
홍성	장곡초 반계분교	2017	미활용(지자체 매각 예정)
홍성	덕명초	2019	자체활용(학습장, 안전체험관 등)
홍성	학계초	1992	자체활용 및 일부 매각(홍남초 양공연습장)
예산	만사초	1992	임대(마을주민 경작지)
예산	대룡초	1999	자체활용(충청남도기록원 설립 예정)
예산	장신초	1999	미활용(일반매각 2차 공고 예정)
예산	광시초	1999	미활용(예산군 매각 무산으로 일반매각 검토 중)
태안	고남초 영향분교	1999	미활용(장래 수요 대비 보존)
태안	원북초 방갈분교	2021	미활용(장래 수요 대비 보존)
태안	원이중 이원분교	2022	자체활용(이원초 관동분교 개축 기간 교육활동 공간 활용)
태안	소원초 의향분교	2023	미활용(장래 수요 대비 보존)

폐교 증가는 곧바로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로 전이된다. 위 자료에 따르면, 도내 관리 중인 폐교는 35개교이며, 이 중 미활용 상태가 18개교(51.4%)로 보고되었다. 더 나아가 미활용 폐교는 임대 수입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더 크게 소요되는 등 재정적 비효율을 동반하고, 관리가 지연될 경우 안전사고

및 범죄 장소화에 대한 우려도 명시적으로 지적된다. 동시에 폐교 활용은 법·제도적 제약과 지역 수요 부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정부 정책자료 역시 폐교 활용을 특정 용도 범주 중심으로 규율해 왔음을 전제하면서, 지역 공공시설·통합돌봄 등으로의 활용 확대와 지자체-교육청 협력 체계 강화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충남지역과 같은 중소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와 출생율 저하로 폐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폐교재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여 평생교육 및 복지증대 기회를 확충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소득증대 시설 등 다양한 방안으로 폐교를 활용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폐교를 박물관으로 전환하여 지역공동체의 교육적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IV. 덕명학습장 ‘흥성교육역사관’의 교육적 역할

1. 전환 맥락: 폐교가 ‘교육거점’으로 재배치되는 경로

덕명초등학교의 전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지녀 온 역사적 위상과 상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덕명초등학교의 기원은 일농 서승태 선생이 1908년 광천 상정리 덕정마을에 설립한 사립 덕명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서승태는 신문학(신교육) 학습을 국가적 위기 극복과 연결하여 학교 설립을 추진했고, 학교 교육에서는 한학을 포함하되 자신이 정리한 교육·사상 내용을 교육의 핵심 사상으로 삼아 민족학교로서의 지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 실천은 지역사회로 확산하여 주민들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1910년에는 제1회 졸업이 이루어졌고, 이후 입학 수요가 증가하자 서승태는 1911년 2월 사재를 투입해 광천읍 신진리(현 덕명초 부지)로 학교를 확장·이전하여 교육 사업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사립 덕명학교는 총독부 교육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1915년 11월 3일 광천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되었고, 오늘날 학교의 공식 개교 연도 또한 공립보통학교가 정식 인가를 받아 개교한 시점에 기준을 두고 있다(덕명개교100주년기념사업회, 2016: 92-93).

덕명학교를 설립한 서승태 사후 지역주민들은 그의 흥학 공적과 교육관을 기리기 위해 1935년 11월 교정에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이는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결집하는 상징적 장소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이후 학교는 학제 변동과 함께 교명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9년 12월 24일 ‘덕명’ 명칭을 회복함으로써 설립자의 교육정신과 지역의 기억을 학교 정체성에 재접속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덕명초등학교는 행정적으로는 1915년 공립보통학

교 개교를 공식 연혁으로 삼되 역사적으로는 1908년 사립 덕명학교 설립을 학교 형성의 출발점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공식 연혁’과 ‘기원 서사’의 병존은 근대 지역교육의 제도화 과정과 지역사회 기억 형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된다(홍주일보, 2015.11.26; 뉴스캔, 2015.10.20).

그러나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덕명초등학교는 2010년대 후반 농어촌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학부모들은 학생 수 감소와 신설 광천초등학교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통합 필요성의 배경으로 제시하였다(홍주일보, 2018.7.26; 홍주일보, 2018.10.6.). 통폐합 논의는 이후 제도적 절차를 거쳐 공식화되었다. 2019년 1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덕명초등학교를 폐지하고 광천초등학교와 통합하는 조례안에 찬성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는 통합 절차에 들어갔다. 덕명초등학교 폐교 후 덕명학습장으로 다시 개관되었다. 이 같은 흐름은 덕명초등학교의 폐교를 개별 학교의 소멸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농어촌학교 재편이라는 더 큰 교육정책 변화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덕명초등학교의 폐교가 공간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덕명초등학교의 전환은 폐교 이후 공간을 소극적으로 관리한 사례가 아니다. 지역교육의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공공 교육 인프라 재편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박물관화 장치: ‘교육기억’의 물질화·서사화

덕명초등학교의 폐교 이후 해당 공간은 단순한 유휴시설로 남지 않고 지역교육의 새로운 거점으로 재구성되었다. 덕명초등학교가 폐교되고 같은 해 7월 4일 교육시설 활용 방안이 수립되었다. 이후 2020년 2월 1일 덕명학습장이 개장하였으며, 2020년 7월 2일에는 흥성상상이룸공작소가 이전되었고, 2020년 8월 13일 흥성안전체험관이 개관하였다. 이어 2021년 7월 1일 흥성교육역사관이 구축되었고, 2022년 7월 8일에는 AI융합학습지원센터가 조성되었으며, 마침내 2023년 5월 23일 덕명학습장 개관식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연혁을 통해서 덕명학습장이 폐교 직후 일회적으로 조성된 공간이 아니라 단계적인 시설 재구조화와 기능 확장을 통해 복합 교육공간으로 완성되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덕명학습장의 조성이 단순한 건물 재사용이 아니라 지역 교육지원 체제의 재편과 맞물린 공간 전략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이다. 흥성교육지원청은 광천지역 학생 수 감소로 광동초, 광남초, 광신초, 대평초, 덕명초등학교가 차례로 광천초등학교로 통폐합됨에 따라 덕명초등학교를 공간 재구조화하여 특색 있는 교육 공간인 덕명학습장으로 조성하였다(중도일보, 2023.8.16). 덕명학습장은 상상이룸공작소와 AI융합학습지원센터, 영재교육원, 교육역사관, 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되며 흥성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즉, 덕명학습장의 조성은 폐교된 학교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미래교육, 체험교육, 안전교육, 영재교육, 교육사 교육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공공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덕명초등학교의 폐교 이후 덕명학습장과 홍성교육역사관이 조성된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과거 학교 공간이 교육적 장소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학습과 기억의 공간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다. 홍성교육역사관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구)덕명초등학교 본동 3층에 5실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폐교를 활용하여 체험과 감동의 지역 교육역사 전시실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학교 공간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 교육의 역사와 기억을 현재의 교육공동체와 연결하는 장소로 재탄생되었다.

홍성교육역사관의 전시 구성은 이러한 교육적 장소성의 보존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역사관은 수장고, 준비실, 세미나실, 그리고 세 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수장고는 미전시 및 기증 교육유물의 보관과 소독을 담당하고, 준비실에는 옛 덕명상회 문방구 세트장과 옛날 교복이 마련되어 있으며, 세미나실은 학생 역사 토론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전시실은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다루며 홍성 학생과 군민의 항일 모습, 일농 서승태와 백아 김좌진의 발자취, 대여·기증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제2전시실은 해방 이후 학교 모습의 변화, 홍성지역 폐교 활용 현황, 교과서 발달사, 교련·스카우트 활동을 다루고, 제3전시실은 1980~1990년대 교육활동, 교구재, 영상 포토존, 사진열람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구성은 과거 학교의 교육 경험을 단순한 유물의 집합이 아니라 시간적 흐름과 생활의 맥락을 지닌 장소 기억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옛 문방구 세트장, 옛 교복, 영상 포토존, 사진열람대, 학생 역사 토론 공간 등은 과거의 교육현장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람자가 그 기억을 현재의 체험 속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즉 이 공간은 과거의 학교를 정지된 기념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생활·관계가 이루어졌던 장소의 경험을 전시와 체험, 토론의 형식으로 재맥락화하고 있다. 따라서 덕명초등학교의 교육적 장소성은 축적된 생활세계와 교육 경험이 현재적 학습 구조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방식으로 보존된다고 할 수 있다.

홍성교육역사관은 지역공동체의 기억을 수집·정리·전시하는 방식에서도 의미가 있다. 역사관은 전시실 전시유물 193점, 수장고 보관 유물 32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출처는 구입, 기관 대여, 민간 기증, 학교 기증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 유물 가운데 민간 기증 46점, 학교 기증 78점이 포함되어 있고, 수장고 보관 유물에서도 민간 기증 100점, 학교 기증 150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교육 유물 기증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기관 단체와 민간의 기증은 홍성교육역사관이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구성한 전시 공간이 아니고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지역민과 학교가 보존해 온 교육자료가 공적 기억으로 집적되는 장치 및 그 과정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홍성교육역사관은 덕명학습장 전체의 교육 운영 구조 안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억 보존과 현재의 교육 실천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덕명학습장에는 역사관 외에도 상상이룸공작소·AI융합학습지원센터, 안전체험관, 영재교육원 등이 함께 조성되어 있고, 상상이룸공작소·AI융합학

습지원센터는 초등학교 5~6학년 교육과정 연계 교육,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 지역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교사·학부모 연수, 맞춤형 AI·SW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홍성교육역사관은 과거를 보존하는 독립적 기념시설이 아니다. 현재적 학습활동과 공존하는 복합 교육공간 안에 자리함으로써 기억과 교육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갖춘 장소이다.

지역 언론도 홍성교육역사관을 ‘홍성 교육의 뿌리를 잇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덕명학습장 개관 보도는 이 공간이 개화기부터 1990년대까지의 홍성 교육사를 전시한다고 설명한다(홍성신문, 2021.12.13; 홍성신문, 2023.5.28). 이는 덕명학습장과 홍성교육역사관이 단지 과거 학교의 흔적을 보존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민에게는 교육의 뿌리를 재인식하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지역 교육사를 체험적으로 접하게 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사례에서 공동체 기억의 재구성은 박제된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현재의 지역사회가 자신의 교육 경험을 다시 해석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면, 덕명학습장 내 홍성교육역사관은 (구)덕명초등학교 건물과 학교생활의 흔적을 활용함으로써 교육적 장소성을 물리적·상징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또한 민간 및 학교 기증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 교육사의 물질적 기억을 공적 서사로 전환하며, 체험·토론·현재적 교육활동과의 결합을 통해 공동체 기억을 현재의 학습 경험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간은 교육이 이루어졌던 장소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지역공동체의 기억을 새롭게 조직하는 실천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3. 운영·참여 구조: ‘역사관+미래교육’의 동시 배치

덕명학습장의 운영은 전시(홍성교육역사관)와 메이커·AI 기반 체험(상상이룸공작소·AI융합학습지원센터)을 분절된 시설로 두기보다 동일 공간 체계 안에서 병치함으로써 ‘교육-체험-전시’가 순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상이룸공작소·AI융합학습지원센터는 학교 사전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5~6 교육과정 연계 및 중1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3D펜·3D프린팅·레이저커팅·로봇 및 드론·목공·재활용·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학습하는 장소이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신청 페이지에는 총 56건의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있고, 가족 목공교실·STEAM AI로봇 체험교실·방과 후 프로그램과 함께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운영 대상이 학생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과 성인 학습자로 확장되어 만족도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특히 ‘마인크래프트로 배우는 역사(초5~6)’와 같이 역사·문화 학습 주제가 디지털 매체 기반 체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은 전시 관람을 교과 기반 활동으로 연결하는 운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홍성교육역사관은 지역 교육사의 전개 과정, 학교생활의 변화, 지역 인물과 항일 경험, 생활사 자료를 시기별로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 구조는 지역의 교육 경험을 단편적 자료의 집합이 아니라 시간적 흐름을 지닌 역사적 서사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 학습자는 이 공간에서 ‘옛 물건’을 관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역의 교육과 생활, 지역 인물의 활동, 학교문화의 변화가

어떤 맥락 속에서 전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홍성교육역사관의 전시 방식은 관람 중심의 일방적 전달을 넘어 체험과 참여를 동반하는 교육 구조를 갖추고 있다. 준비실에 마련된 옛 덕명상회 문방구 세트장과 옛 교복, 제3전시실의 영상 포토존과 사진열람대, 세미나실의 학생 역사 토론 공간은 학습자가 과거 교육문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스스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이 가운데 세미나실을 별도로 두어 학생 토론 공간으로 조성하였다는 점은 전시 자료를 매개로 질문과 대화, 사고를 확장하는 학습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홍성교육역사관은 지역의 과거를 현재의 학습경험으로 변환하는 체험형 역사교육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전시 구성의 핵심 특징은 '지역 교육사'의 시간적 층위를 관람 동선에 따라 경험하도록 조직하는데 있다. 홍성교육역사관은 옛 '덕명상회(문방구)' 세트장과 옛 교복 등 생활사적 교육 유물을 배치하고, 3개의 전시실을 통해 개화기부터 1990년대까지 홍성 교육의 흐름을 다루는 방식으로 전시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교과서·졸업앨범 등이 전시된다는 점은 학교교육의 일상적 기록이 지역사 자료로 전환되는 과정을 관람자가 직접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전시 설계는 지역사 교육에서 장소기반교육(place-based education)과 사물기반학습(object-based learning)의 결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첫째, 전시가 '옛 학교'라는 장소성 위에 구축되었다는 점은 지역사 학습을 '텍스트-지식'에서 '장소-경험'으로 이동시키며, 학습자가 지역공동체의 교육 기억을 물리적 환경(교실, 복도, 유물의 배치) 속에서 체화하도록 돕고 있다. 폐교라는 제도적 결과물이 '지역의 기억 장치'로 재구성되는 과정 자체가 학습 내용이 되며, 이는 지역사 교육에서 자주 강조되는 공동체 기억의 매개와 재현을 전시가 수행한다는 뜻이다. 둘째, 교과서·졸업앨범·교복·문방구 세트장과 같은 사물은 관람자에게 '그 시대 학생의 삶'을 추론하게 하는 단서로 기능하여 단순한 연대기 학습을 넘어 사료 기반 탐구 '누가 무엇을 왜 남겼는가, 무엇이 생략되는가'로 수업 설계를 확장할 여지를 제공한다.

지역사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홍성교육역사관은 학습자가 자신의 생활세계와 역사적 지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매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사 교육은 단순히 교과서 속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홍성교육역사관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국가 단위의 거시적 교육사나 교과서 지식만으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지역 차원의 교육 경험을 장소와 자료를 통해 드러낸다.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1980~1990년대까지의 전시 구분은 지역 교육의 변화를 시대사와 연관 지어 이해하게 하고, 지역 인물과 항일 경험의 제시는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한다(홍성신문, 2021.12.13).

이와 함께 덕명학습장 사례는 폐교의 박물관화가 지역사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도 보여준다. 첫째, 폐교라는 장소 자체가 이미 교육적 기억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박물관의 교육 기능과 결합할 경우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학교사와 생활사 자료를 수집·전시함으로써 지역민의 삶과 역사적 경험을 가시화할 수 있다. 셋째, 체험과 토론,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과 같은 현재적 학습 구조 안에 역사관이 배치됨으로써 기억 보존이 정적인 기념 행위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교육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덕명학습장·홍성교육역사관 사례는 폐교 기반 지역박물관이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는 장소이자 동시에 지역사 교육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덕명학습장과 홍성교육역사관은 폐교의 박물관화가 단순한 시설 재생이나 향토전시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역사와 교육 경험을 현재적 학습의 자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폐교는 더 이상 과거의 교육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민과 학생이 지역의 과거를 해석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교육적 의미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4. 교육적 효과: 지역사 교육 관점에서의 의의

홍성교육역사관은 (구)덕명초등학교 본동 3층에 조성되었고, 조성 목적도 ‘체험과 감동의 지역 교육 역사 전시실’을 구성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전시실 전시유물 193점과 수장고 보관유물 321점을 보유하고 있어 폐교 공간이 지역 교육의 물질적 흔적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덕명학습장 사례는 교육유산 보존을 단순한 자료의 축적으로 보지 않고 학교라는 장소의 역사성과 결합하여 보다 입체적인 문화적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장소기반교육(place-based education) 관점에서 지역사 학습의 조건을 강화한다. 장소기반교육은 학습의 출발점을 지역의 생활세계와 장소성에 두어, 학습자가 ‘지식’을 추상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장소에 뿌리내린 경험과 의미 구성을 수행하도록 조직한다. 홍성교육역사관 전시는 ‘학교였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유산의 보존이 기록·자료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장소의 기억 즉, 학교 공간의 상징성과 생활 경험까지 함께 보존·재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또한 전시가 개화기~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1980~1990년대에 이르는 홍성 교육사를 시기별로 제시하며 학교 모습의 변화, 교과서 발달사, 교육활동 사진, 교구재, 지역 인물과 항일 경험을 함께 다룬다는 점은 지역의 교육 경험을 향수의 대상으로만 소비하지 않고 시간적 변화와 사회적 맥락을 갖춘 역사 자료로 조직한다는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공간은 학습자가 ‘지역의 교육사’를 텍스트 밖의 생활세계와 연결하며, 지역을 역사적 탐구의 장으로 재인식하도록 돕는 장소기반 학습 환경으로 기능한다.

둘째, 사료(증거) 기반 역사학습의 관점에서 전시물을 ‘정보’가 아니라 ‘증거’로 전환시키는 학습 구조를 제공한다. 역사교육에서 사료 기반 학습은 자료 제시 자체가 아니라 학습자가 출처 ‘누가·언제·어떤 목적에서 생산했는가’, 맥락 ‘당대 제도·생활 조건’, 교차검증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해석을 구성하는 탐구 과정에 의해 성립한다. 홍성교육역사관이 교과서·졸업앨범·사진·교복·학용품 등 학교교육의 일상 기록을 전시 자원으로 제시한다는 점은 학습자가 지역 교육사를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료 관찰-질문 생성-근거 기반 해석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특히 전시실 구성 안내에서 수장고, 준비실(‘덕명상회’ 세트·옛 교복), 세미나실(학생 역사 토론 공간)이 함께 제시되는 점은 전시가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증거를 둘러싼 해석과 토론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사례의 인지적 교육효과는 ‘지역 교육사 지식의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자료를 근거로 역사적 서사를 구성하는 역사적 사고(증거 기반 추론) 수행의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사물기반학습(Object-Based Learning, OBL)의 관점에서 ‘물질문화’가 학습을 촉발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OBL은 사물을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아 관찰-추론-해석-토론을 유도하며, 사물의 물질성과 다감각적 경험이 질문 생성과 의미 구성을 촉진한다. 홍성교육역사관의 생활사적 유물(옛 학용품·교복·책가방 등)과 ‘덕명상회’ 연출은 교육의 일상성을 물질적 단서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그 시대 학생의 삶’을 추론하고 해석하도록 돕는다. 특히 사물이 단지 ‘전시품’이 아니라, 토론 공간과 결합하여 관찰 결과를 논증과 해석으로 발전시킬 때, 학습자는 지역 교육사를 추상적 지식이 아닌 사물-증거 기반의 역사적 이해로 구성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본 사례는 ‘사료 기반 학습(증거)’과 ‘사물기반 학습(물질문화)’이 결합될 때 지역사 교육이 더 설득력 있는 탐구 경험으로 조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종합하면, 덕명학습장·홍성교육역사관의 교육효과는 인지-정서·정체성-사회·시민성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범주화될 수 있다.

첫째, 인지적 효과는 지역 교육사의 변동을 시기 구분, 연속·변동, 원인·결과의 틀로 구조화하는 데서 나타난다. 더 나아가 사물·기록을 근거로 해석을 구성하는 활동이 결합될 때, 학습자는 지역 교육사를 ‘정보’가 아니라 ‘증거’로 다루게 되고, 역사학습의 핵심인 자료 해석 능력을 수행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둘째, 정서·정체성 효과는 ‘학교였던 장소’가 지닌 장소성과 전시가 결합하면서 강화된다. 덕명초등학교가 2015년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치를 만큼 지역사회에서 상징성을 인정받아 왔다는 사실은, 이 공간이 지역의 교육 기억과 정체성의 중요한 매개였음을 보여준다(홍주일보, 2015.11.26; 뉴스캔, 2015.10.20). 또한 제1전시실이 일농 서승태와 백야 김좌진, 학생과 군민의 항일 경험 등을 조명한다는 점은 지역의 교육사를 공동체 역사로 재인식하게 하여, 학습자와 지역주민이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과 교육적 전통을 재구성하는 정체성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돕는다.

셋째, 사회·시민성 효과는 운영 구조와 참여 기반에서 도출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홍성교육역사관 소장 유물은 구입 뿐 아니라 기관 대여, 민간 기증, 학교 기증으로 구성되며, 이는 지역의 교육 기억이 행정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주민·학교의 참여적 집적을 통해 구성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덕명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동문 및 기념사업회 중심으로 추진되고 후원이 뒤따랐다는 점은 공동체적 애착과 참여의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홍주일보, 2015.11.26; 뉴스캔, 2015.10.20). 따라서 본 사례는 기증·기록·구술 등으로 확장될 경우, 지역사 학습을 ‘참여형 학습’으로 전환하는 시민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유산 보존과 지역정체성 형성, 공동체 참여가 분리된 차원이 아니라 복합 교육

플랫폼의 운영 속에서 결합할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덕명학습장은 홍성교육역사관뿐 아니라 상상이룸 공작소, AI융합학습지원센터, 안전체험관, 영재교육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학교의 미래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과도 연결된다. 즉 이곳은 ‘과거를 보존하는 역사공간’과 ‘현재의 학습활동’이 공존하는 구조를 갖고, 홍성교육역사관은 그 속에서 교육유산을 보존하는 장소이면서도 현재의 학습 경험과 접속되는 살아 있는 교육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런 점에서 덕명학습장·홍성교육역사관 사례는 폐교의 박물관화가 시설 재생을 넘어 장소기반·사료(증거) 기반·사물기반 학습이 결합된 지역사 교육 실천의 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덕명학습장·홍성교육역사관은 폐교의 ‘박물관화’가 단순한 시설 재생을 넘어 교육유산 보존, 지역정체성 형성, 공동체 참여를 포괄하는 다층적 교육문화 실천이 될 수 있는 사례이다. 지역의 역사와 교육 경험을 공공적으로 해석하고 미래세대의 학습 자원으로 전환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폐교 활용을 시설 재생이나 자산 관리의 범주로 환원하기보다, 폐교가 지닌 교육적 장소성과 지역공동체의 교육 유산이 박물관적 장치를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고, 그것이 지역사 교육의 장으로 어떤 의미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덕명학습장·홍성교육역사관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는 전환 맥락, 박물관화 장치, 운영·참여 구조, 교육적 효과의 네 범주로 ‘폐교의 박물관화’를 조직화하고, 덕명초등학교의 폐교 이후 단계적 재구조화와 홍성교육역사관의 전시·공간 구성, 그리고 복합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운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덕명초등학교의 전환은 ‘폐교=기능 소멸’이라는 통념과 달리 학령인구 감소와 통폐합이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폐교 공간이 지역교육 거점으로 재배치되는 경로를 보여준다. 즉 전환은 단발성 시설 처분이 아니라 교육지원 체제 재편과 결합한 단계적 공간 전략으로 진행되었으며, 과거 학교가 ‘교육이 이루어졌던 장소’에서 ‘다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재맥락화되는 공간적·상징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 점은 폐교 기반 지역박물관을 ‘대체 시설’이 아니라, 교육적 장소성 자체를 자원으로 삼는 공공 교육 인프라의 한 유형으로 재정의할 근거가 된다.

둘째, 홍성교육역사관은 전시 서사(시기 구분), 사물·기록의 집적(전시·수장), 체험·학습공간(준비실·세미나실·사진열람대 등)을 결합함으로써 ‘교육 기억’을 물질화·서사화하는 박물관화 장치를 구성한다. 이는 전시를 단순한 향토 자료 진열로 보는 것이 아닌 지역교육 경험을 시간적 흐름과 생활의 맥락 속에서 ‘공적 서사’로 조직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전시가 학교였던 공간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기록과 사물이 장소의 기억과 결합하여 교육 유산 보존이 자료의 축적을

넘어 '장소-기억-학습'의 결합 구조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지역사 교육 관점에서 교육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인지적 차원에서는 전시가 지역 교육사의 변동을 시기 구분, 연속·변동, 원인·결과의 틀로 구조화하도록 하며, 사물·기록을 근거로 해석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지역 교육사를 '정보'가 아니라 '증거'로 다루는 자료 해석 능력의 수행을 촉진한다. 정서·정체성 차원에서는 '학교였던 장소'의 장소성과 전시가 결합함으로써 지역의 교육 기억을 공동체 역사로 재인식하게 하고, 세대 간 교육 경험을 대화할 수 있는 기억으로 매개한다. 사회·시민성 차원에서는 기증·수집의 참여적 집적과 공공자산의 재활용 운영 방식이 참여형 학습의 기반을 형성하며, 향후 구술·아카이빙 등으로 확장될 경우 지역사회 학습의 시민적 실천을 강화할 수 있다. 즉 덕명학습장·흥성교육역사관은 '폐교의 박물관화'가 교육유산 보존-정체성 형성-참여 학습을 하나의 운영 구조 속에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교육효과를 산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폐교 기반 지역박물관의 교육적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시물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학습자가 자료를 증거로 전환하도록 하는 질문·토론·교차자료의 학습 설계가 제도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지역으로 적용 가능성은 '폐교를 박물관으로 만든다'는 형식적 복제에 있지 않고, 장소성의 보존과 재해석, 사물·기록의 공적 집적(기증·수집), 전시와 교육과정·연수·체험 프로그램의 결합, 운영 주체(교육청·지자체·지역단체) 간 거버넌스라는 핵심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의해 좌우된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단일 사례의 문헌·기록 분석에서 나아가 실제 방문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관찰·측정(학습자 산출물, 인식 변화, 참여 지속성 등)하고, 유사 유형의 폐교 박물관 사례들과 비교함으로써 '박물관화'가 교육효과를 산출하는 인과 경로를 더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덕명학습장·흥성교육역사관 사례는 폐교의 박물관화가 단순한 시설 재생 그 이상의 지역의 교육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지역사회 교육과 공동체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교육문화 실천의 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폐교 활용은 효율적 자산관리의 논리만으로 판단되기보다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학습·참여·기억의 관점에서 재이해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그러한 재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와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6).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보도자료.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5). 『폐교,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재탄생됩니다!(카드뉴스/정책홍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덕명개교100주년기념사업회 (2016.10). 『덕명초등학교100년사 1915-2015』. 홍성: 홍성신문.
 마상진 (2010). 『농촌의 폐교활용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 전진성 (2004). 『박물관의 탄생』. 서울: 살림.
- 최병식 (2010). 『뉴뮤지엄의 탄생』. 서울: 동문선.
- 충청남도의회 결산검사위원 (2024).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12호.
- 강주희 (2024). 국내외 커뮤니티 박물관 사례 연구: 지역사회 기반 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미술교육 연구논총**, 76, 1-21.
- 김고운·강인애·이주연 (2020). 지역기반 참여적 학습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조형교육** 75, 63-90.
- 김성덕·강정규 (2017). 『도심지역의 폐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15(3), 237-254.
- 김인희 (2014). 『지역문화와 박물관교육』. **지역문화연구**, 13, 9-10.
- 김재영·이종국 (2014). 『폐교활용 교육시설의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13(1), 50-57.
- 김정은·류진석·김대식·정여주 (2023). 『농촌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우수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조사』. **한국농촌계획학회**, 29(1), 51-57.
- 노영희·노지윤 (2018). 『도서관의 폐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35(4), 77-106.
- 노영희·노지윤 (2019). 『폐교 발생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의 폐교 활용 제고에 관한 연구 - 폐교 발생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을 기반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157-176.
- 도현학 (2011).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폐교시설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3(3), 91-9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25. 5. 1) 법률 제20746호 [2025. 1. 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 16440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배선학 (2013). 『폐교의 공간적 분포와 활용 현황』. **한국사건지리학회지**, 23(1), 53-60.
- 변경화·강은정·유창균 (2015). 『폐교를 활용한 체험활동 숙박시설의 공간계획 분석』. **한국주거학회**, 26(2), 111-119.
- 서진선·강인애·최지혜 (2019). 지역기반 박물관에서의 참여적 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박물관학보**, 37, 105-138.
- 송정화 (2014). 『도심폐교를 활용한 박물관프로그램 및 운영특성에 관한 연구: 도쿄 장난감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3(4), 272-280.
- 심수연·한현수 (2025). 지역정체성 향상을 위한 박물관 교육의 활용방안. **지역과문화**, 12(4), 355-378.

- 양지연·김혜인 (2012). 공동체와 커뮤니티 박물관: 사회적 역할과 조건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7(4), 107-130.
- 이미영·김효진 (2023). 『경기도 미활용 폐교의 교육적 활용 방안 탐색 - 청소년 건강증진시설을 중심으로 -』. **역사와 교육**, 37, 37-59.
- 이용조·우종윤 (2020). 『‘청주 소로리법씨’의 오늘과 내일 - 소로분교를 박물관으로 -』. **박물관학보**, 38, 261-288.
- 이종국·허성훈 (2011). 『대도시 폐교시설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9(2), 89-95.
- 이주일 (2017). 『폐교시설의 자연순환형 복합 체험학습장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문화 활성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문화산업학회**, 17(2), 1-9.
- 장우석·정남수 (2013). 『농촌폐교 활용 정책수립을 위한 그린투어리즘 접근성 평가 -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 **한국농촌계획학회**, 19(4), 293-306.
- 최재필·이윤재·유정원·변나향·문근중 (2010).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폐교시설 활용계획』. **대한건축학회**, 26(3), 3-11.
- 최준렬·김훈호·김은경 (2020). 『충남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유형 분석』. **충남교육**, 34(2), 1-29.
- 홍성신문 내포타임즈 (2015.10.22.). 『‘덕명 100주년, 새 광천 계기로 ...’』. <https://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53> (검색일 : 2026. 2. 8)
- 홍성행복교육지구 (2019. 3. 1). 『홍성교육지원청 덕명학습장』. https://happycnhsed.kr/bbs/board.php?bo_table=resource6&wr_id=22 (검색일 : 2026. 2. 8)
- 홍주일보 (2015.11.26.). 『개교100년 역사를 기리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덕명교육 비전』. <https://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56> (검색일 : 2026. 2. 8)
- 중도일보 (2023.8.16.). 『미래로 도약하는 홍성 덕명학습장』.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30816010004438> (검색일 : 2026. 2. 8)
- 홍성신문 (2021.12.13.). 『홍성 근대 교육 꽃 핀지 올해로 114년』. <https://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31>(검색일: 2026. 2. 8)
- 홍성신문 (2023.5.28.). 『홍성 AI교육특화도시로...덕명학습장 개관』. <https://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229> (검색일 : 2026. 2. 8)
- 홍성신문 (2025.3.29.). 『개화기 홍성 교육운동 선구자 ‘일농 서승태’』. <https://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176> (검색일 : 2026. 2. 8)
- 홍주일보 (2015.11.26.). 『개교100년 역사를 기리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덕명교육 비전』. <https://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56> (검색일 : 2026. 2. 8)
- 홍주일보 (2018.10.6.). 『100여년 전통의 농어촌학교 과연 문이 닫히나?』. <https://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74> (검색일 : 2026. 2. 8)
- 홍주일보 (2018.7.26.). 『광천읍 학교 통폐합 문제 불붙나?』. <https://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74> (검색일 : 2026. 2. 8)

- ml?idxno=31965 (검색일 : 2026. 2. 8)
- 홍주일보 (2019.1.31.). 『덕명초교 통폐합 찬성 결정』. <https://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07> (검색일 : 2026. 2. 8)
- 홍주일보 (2024.8.29.). 『100년의 전통과 역사를 되짚다... ‘홍동초등학교 100년사’ 발간』. <https://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150> (검색일 : 2026. 2. 8)
- Bennett, T. (1995).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London: Routledge.
- Crooke, E. (2007). *Museums and Community: Ideas, Issues and Challenges*. London: Routledge.
- Group for Large Local Authority Museums (GLLAM) (2000). *Museums and social inclusion: The GLLAM report*. Leicester: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University of Leicester.
- Hooper-Greenhill, E. (2000). *Museums and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Culture*. London: Routledge.
- Latham, K. F., & Simmons, J. E. (2014). *Foundations of Museum Studies: Evolving Systems of Knowledg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Mason, R. (Ed.). (2019). *Museum Studies*. London: Routledge.
- Peters, R. S. (1973). *Aims of education: A conceptual inqui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andell, R. (2003). *Museums, Society, Inequality*. London: Routledge.
- Sandell, R., & Nightingale, E. (Eds.). (2012). *Museums, Equality and Social Justice*. London: Routledge.
- American Alliance of Museums (AAM) (2025). *Core Standards for Museums*. American Alliance of Museums.
-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2022). *Museum definition*.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Abstract

Museumification of a Closed School and Its Educational Significance: The Hongseong Education History Museum at the Deokmyeong Learning Center

Ahn, Juhong¹

¹*Research Professor, Chungwoo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museumifying a closed school beyond facility renewal or asset management, focusing on how an educational sense of place and community memory as educational heritage are reconstructed through the Deokmyeong Learning Center and the Hongseong Education History Museum. Drawing on the Center's official website, administrative and policy documents, and public reports, the study analyzes the transformation process as well as the exhibition and operational structure. The analytical framework comprises four components: (1) transformation context, (2) museumification mechanisms, (3) operational and participatory structure, and (4) educational effects. The findings show that the museum integrates an exhibition narrative with the accumulation of objects and records (display and storage) and learning spaces (e.g., preparatory and seminar rooms), thereby materializing and narrativizing educational memory. The Learning Center further supports repeated engagement by linking the museum function with maker-, AI-, and safety-related experiential programs. Educational effects are conceptualized as cognitive (evidence-based interpretation and inference), affective/identity (place-based re-recognition and intergenerational mediation), and social/civic (public stewardship through donation- and record-related participation). Overall, the case indicates the potential to expand local history learning into a place-experience-evidence-centered inquiry by integrating object-based learning (OBL), place-based education, and source-based historical inquiry.

Key Words: closed-school reuse, museumification, heritagization, local history education, place-based education, evidence-based learning, object-based learning (OBL), Hongseong Education History Museum